

### 실속 재테크

### 알짜 미분양 아파트 노려라

# 분양조건 파격·시세차익 군침

#### 수완지구 대부분 분양가 할인에 서비스 혜택

#### 교통·전망 좋은 주공 물량도 투자 가치 높아

광주지역 아파트 미분양 시장이 조금씩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아파트 시장에서 가장 큰 장이 열리는 새 봄이 시작된다. 정부의 세금 감면 조치도 맞물리면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미분양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업계는 지금이 '알짜 미분양 아파트'에 눈을 돌려볼 때라고 강조하고 있다.

◇혜택 많다는데, 옮겨볼까=광주지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1만2천997세대. 수완지구에 43.9%인 5천717세대가 풀려있다. 그만큼 미분양을 털어내려는 건설사들이 내

놓은 혜택도 많다.

우미건설은 수완지구 아파트(잔여세대 300세대) 분양가를 당초(1억9천200만원·공급면적 115~118㎡)보다 최고 15%까지 할인해 판매 중이다. 발코니 확장 및 세시 무료 서비스에 계약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대형냉장고·PDP TV 경품까지 내놓고 있다.

진흥기업도 수완지구 내 446세대 36평형(공급면적 121㎡)의 분양가를 당초 2억8000만원에서 1억8천900만원으로 깎았고 추가 비용(1천100만원)을 내야 했던 발코니 확장을 무료로 해준다.

양우건설의 경우 33평형(공급면

적 109㎡)의 분양가를 1억8천400만원에서 1억6천900만원으로 인하했다. 새한건설도 수완지구내 364세대(36평형·공급면적 120㎡)를 분양하면서(분양가 1억9천830만원+발코니 확장비 1천435만원) 시스템 에어컨 등 온갖 빌트인 가전을 제공한다.

수완지구 외 타 지역에 미분양에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

호반건설이 동탄 2지구에 분양중인 아파트(803세대)의 경우 분양대금(34평형 2억8000만원·35평형 2억1천900만원·43평형 2억7천200만·52평형 3억5천만원) 중 50%만 내고 나머지는 입주 2년 뒤부터 3차례로 나눠내도록 하고 있다.

분양금을 한꺼번에 낼 경우 그만큼 이자(연 6%로 약 1천600만원 정도)를 돌려주는 것을 비롯, 취·등록세 회사 전액 부담에 발코니 확장 비용(1천200만원)도 무료다.

한일건설이 남구 지식동에 분양했다가 분양가의 45% 수준으로 내놓은 전세 물량도 관심을 끌고 있다.

◇가격이 저렴한 공공 건설은 어떨까=주택공사가 분양중인 아파트에 눈여겨볼만하다.

주공은 민간 건설사와 크기는 비슷하지만 저렴한 분양가에 입지 여건도 동림동, 진월동·양림동 등 다양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여기에 민간 건설사와 유사한 할인 혜택 등도 조만간 내놓을 태세라 실수요자들이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도회 관계자는 “무조건 혜택이 많고 값이 싸다는 것만 눈여겨보지 말고 교통·전망을 비롯, 미래 투자 가치를 꼼꼼히 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물기자 dok2000@kwangju.co.kr



**'한두레농산' 개장** 농업회사법인 한두레농산(회장 한동주)은 3일 광주시 수완택지개발지구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강박원 광주시의회 의장, 전갑길 광산구청장, 송기진 광주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농산물 산자유통센터 개장식을 개최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비 올때 우산 뺀' 지역 금융기관

#### 작년 기업 대출 1조7천억... 9.7% 증가 그쳐

역원으로 증가폭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또 건설업은 미분양 아파트 적체 등 건설경기 침체로 신규 자금수요가 줄어들었다.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에 나서면서 2007년 6천965억원에서 지난해 5천244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

반면 제조업 대출은 화학, 기계업종을 중심으로 긴급자금 수요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8천149억원이 늘어 전년 증가폭(3천321억원)의 2.5배에 달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08년중 예금은행의 산업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전남지역의 산업대출(기업대출) 증가액은 1조7천819억원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2007년도 증가액 2조1천614억원(13.4%)에 비해 3천795억원이나 줄어든 것이다. 이에따라 총대출 잔액에서 기업대

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4.5%로 1년 만에 1.3%포인트 상승했다.

기업대출 증가세가 둔화된 것은 실물경기 부진으로 창업욕구가 줄어드는 등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다. 은행들이 신용위험에 대비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수적으로 운용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2007년 1조2천16억원에서 지난해 4천624

# 광주 상의 의원 선거 없다

#### 후보 등록 정족수 못채워... 회장도 경선 없이 추대될 듯

광주상공회의소 제20대 회장 선거권을 갖는 제20대 의원 선거가 치러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달 중순에 예정인 제20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도 경선없이 추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3일 광주상공회의소 선거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마감한 제20대 의원 특별의원 후보자 등록 결과 의원 정원 70명 중 59명, 특별의원 정원 10명 중 8명 등 총 67명이 후보등록을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는 이에 따라 오는 12일 예정인 제20대 의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후보등록을 마친 67명의 의원에 대해 13일 당선인으로 공고할 계획이다.

선거규정에 의원 및 특별의원 각 정원의 5분의 1 이상의 결원이 있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5분의 4 이상이 등록함에 따라 보궐선거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광주상의 의원 선거가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것은 지역 기업들 사이에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회장선거를 위한 이진투구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상의회장 추대 분위기가 대체로 굳어지면서 후보군으로 거론된 인사들이 자기 세력을 동원하지 않은 것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마감한 선거

권 및 피선거권 확보를 위한 회비 납부에서도 모두 146개사가 완납해 지난 2006년 상의 의원 선거 당시 회비 완납사 1천36개사에 비해 7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70명 의원 정원에도 미치지 못한 후보등록 상황은 지역 기업인들이 최근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회장선거로 인한 분열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의원 선거부터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상의의 의원선거일(12일)로부터 7~14일 이내에 임원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개최해 제20대 회장을 포함한 임원을 선출하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금융시장 진정세 당국 개입 환율 하락 코스피 1000선 유지

정부 당국의 개입으로 연일 급등하던 환율이 하락하면서 주가가 소폭 반등하는 등 금융시장이 일단 진정세를 보였다.

3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한때 1,600원에 근접할 정도로 급등했으나 당국의 개입으로 전날보다 달러당 17.90원 떨어진 1,552.4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당국은 이날 장 초반 개입에 나서면서 1,600원대 진입을 막은 데 이어 장 중 지속적으로 개입하면서 환율 하락을 유도한 것으로 관측됐다.

증시에서 코스피지수는 장 초반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1,000선이 붕괴되기도 했지만 환율 하락에 힘입어 반등했다.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6.76포인트(0.66%) 상승한 1,025.75로 마감했고, 코스닥지수는 1.59포인트(0.55%) 떨어진 347.76을 기록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지역 소상공인 대상 光銀 1천억 대출

광주은행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천억원의 대출을 대한다.

3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 은행 자체자금 1천억원을 마련해 연말까지 대출신청을 받는다.

대출자격은 지역보증재단(광주신용보증재단, 전남신용보증재단)으로 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으로서 업체당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며 1.0%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일시상환 대출은 기간을 1년에 3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분할상환 대출은 1년 거치 4년 조건이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 새 얼굴

# "고부가 제품 생산...경쟁력 확보"

#### 조 비 하 포스코 광양제철소장



"고객이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신임 조비하(56) 포스코 광양제철소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효율적 생산능력 확보와 전략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 향상 등 고객을 위한 강력한 원가경쟁력 확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조 소장은 이를 위해 기본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지속적인 혁신 활동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또 조 소장은 "혁신의 성과 위

에 현장중심의 혁신을 가속화해 보다 강한 체질의 광양제철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출신인 조 소장은 서울 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졸업한 후, 지난 1977년 포스코에 입사해 광양제철소 4 번째 공장장, 압연 담당 부소장 등을 역임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주)제주무궁화관광**

프리미엄 제주여행상품

제주도 여행 패키지 89,000원

가파도, 한라, 표선항 - 제주여행상품입니다. 1. 제주 탐험선 동편 - 1일 탐험여행 상품입니다. 99,000원

1박 2일 패키지 39,000원

3박 4일 패키지 89,000원

4박 5일 패키지 169,000원

5박 6일 패키지 179,000원

6박 7일 패키지 181,000원

문의: ☎064-744-1109 www.jmktour.net

마실수록 가벼워지는 수소수!

내 몸속의 활성산소를 없애자!

수소수 하면 좋지만 노폐물까지 씻어내 주는 활성산소를 없애는 수소수!

수소수 400ml 1000개, 4000개, 8000개, 16000개

1000개 15,000원

4000개 59,000원

8000개 119,000원

16000개 239,000원

4000개 59,000원

8000개 119,000원

16000개 239,000원

4000개 59,000원

8000개 119,000원

16000개 239,000원

문의: ☎060-703-1000